

노래번역)필 옥스 - 날 사랑해줘 난 진보주의자야

심장중의강철

<https://youtu.be/3cdqQ2BdgOA>

<https://youtu.be/8nGJ3AjFF1Y>

날 사랑해줘, 난 진보주의자야(Love Me, I'm a Liberal)는 필 옥스가 1965년에 만들고 1966년에 발표한 노래로 존.F.케네디와 메드가 에버스등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을 풍자하는 노래로 걸으로는 좌파, 노동자의 편, 흑인들의 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저 다른 자본가들과 다를바 없었던 것을 풍자하는 노래이다.

1절

저놈들이 메드가 에버스를 쏴 때 난 울었어

눈물이 내 척추를 타고 내려갔지

저새기들이 케네디를 쏴 때도 울었어

마치 내 아빠를 잃은거 같았거든

말콤 X가 죽었을 때도 난 슬펐는데

뭐 그건 개가 너무 급진적이었으니까 그런거 아니겠어? 개가 원했던 것도 얻었잖아

후렴

그러니 날 사랑해줘, 날 사랑해줘, 날 사랑해줘

난 진보적인 자유주의자야

2절

나는 민권운동 시위에 매일 참여하고있어

옛날 단체인 **DAR[1]**에서 나왔지만

난 그래도 흑인인 해리[2]와 새미를 좋아해[3]

난 저 유색 '어린이'(저 둘은 성인임)이 별이 되면 좋겠어

아 근데 혁명하자고는 하지마

그건 너무 급진적이라고

후렴

3절

난 험프리가 당선됐을 때 좋아했어[4]

드디어 민주당이 승리했어,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좋은 체제야

난 **AFL-CIO[5]**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쫓겨난게 너무 기뻐![6]

그리고 나는 푸에르트리코인과 흑인들이

내 옆집에 이사만 안오면 난 개들을 좋아할꺼야

후렴

4절

내가 '뉴 리퍼블릭'과 '더 네이션'을 읽어봤거든(둘다 자유주의 잡지 이름임)

나는 다양한 관점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해

난 폴튼[7]과 러너[8]의 저서들도 읽어봤어

아 진짜 난 내가 유대인이 된거같다니까!(둘 다 유대인임)

아 하지만 한국전쟁과 같은 시기가 온다면

사상의 구분 없이 조국을 위해 싸워야하지 않겠어?

후렴

5절

난 민주당에 투표했어

난 **UN**이 더 강해지면 좋겠어

난 피트시거 콘서트에도 참석 해봤다고!

피트시거는 내가 노래를 부르는걸 허락해줬어

내가 너희 단체에 지원금을 줄태니까

이 '혁명가 모임'에서 나가서 나와 같이 가자

후렴

6절

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치편을 착용했어[9]

사회주의자 집회에 가고 오래된 노동조합가[4][5]도 불렀단 말이지

근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혁명'해지고서 거기서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너희를 이해하고 너희가 '진보주의자'가 된다면 난 받아들일 수 있어

후렴

번역후기

진보주의자란 작자가 더민주 지지하는게 생각났다.

진ㅋㅋㅋㅋㅋ보ㅋㅋㅋㅋㅋ

[1] Daughters of the American Revolution. 미국 혁명 여성회.

[2] Harry Belafonte. 해리 벨라폰테

[3] Sammy Davis Jr. 새미 데이비스 주니어

[4] Hubert Humphrey. 휴버트 험프리

[5] AFL-CIO. 미국 노동연맹-산별노동조합협의회

[6] 40~50년에 AFL-CIO에서 공산주의자 숙청사건이 있었음.

[7] Harry Golden. 해리 골든

[8] Max Lerner. 맥스 러너

[9]



이런거 처럼 자기 사상을 알리는 편

[4][5] There's Power in a Union, Joe Hill등의 노래가 아니라 민권 운동 당시의 찬송가와 같은 '덜 사회주의적인 노래'를 의미함. (We Shall Overcome등)

